

[보도자료] 쿠팡, 최대 1000억원 투자해 AI 기반 충북 제천첨단 물류센터 착공 청년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025. 3. 19.



쿠팡이 19일 오후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쿠팡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을 진행했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엄태영 국회의원, 박대준 쿠팡 대표, 김창규 제천시장, 이동욱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 충북 제천시에 1만6000평 규모 물류센터 공사 시작 2027년부터 운영 계획
- 20~30대 청년 비롯 최대 500명 직고용 예정 인구감소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2025. 03. 19. 서울 - 쿠팡이 충청북도 제천시에 제천첨단물류센터를 착공한다.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최대 약 500명의 직고용 창출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19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천제3산업단지에서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20년 제천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에 착공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이동욱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천첨단물류센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최대 100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약 1만6000평 규모로 건립한다. 2026년 6월 준공, 2027년 상반기 운영 시작이 목표이며 앞으로 충청 및 강원권 '로켓배송' 확대를 위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쿠팡 제천첨단물류센터 조감도

제천첨단물류센터는 2030 청년을 비롯해 최대 500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제천시의 인구 유입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준 대표는 “제천첨단물류센터를 통해 충청지역 고객들에게 더 좋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를 활용한 쿠팡의 첨단 물류 시스템과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쿠팡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물류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동욱 행정부지사는 “쿠팡의 첨단 물류 시스템이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규 시장은 “쿠팡의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물류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은 쿠팡이 2024년 초 밝힌 대규모 물류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쿠팡은 2026년까지 약 3조원 투자로 전국 9개 지역에 추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을 로켓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에만 경북 김천, 부산 강서, 경기 이천 물류센터가 착공했고 충남 천안, 남대전, 광주첨단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경북 칠곡 서브허브는 지난해 말 운영을 시작했고, 울산 서브허브도 올해 안에 준공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